

GMOA Keller



General view Counter viewed from the inside

The GMOA Keller, a time-honored institution founded in 1858, has to date only been adapted rather gently and is much loved especially because of its authentic charm. At the same time, this curio also has a slightly anachronistic feel to it. The business is running well, the audiences and artists of the nearby Konzerthaus and Akademietheater guarantee full tables. This is why the landlord has decided to expand the restaurant with a sublevel.

Our response is a contemporary, calm dining area which invites guests to discover the excellent Viennese cuisine and to enjoy a glass of wine at the crisply laid tables and which offers a space for regulars to have their beer at the classic Resopal table. The room can be adapted for special events with little effort.

Knick-knacks are avoided, the brick arches are simply whitened; this is not a romantic cellar space. Conventional traditional restaurants make do without ventilation pipes. The ventilation requirements of the subterranean room are screened from the guests' eyes. The wooden floor and the wood panelling are stained dark. The theater curtain rail allows the rooms to be divided into zones and niches by a curtain. The tables measure 60x60cm and therefore allow quick reactions to guests' wishes by easily rearranging tables even during a busy evening. Hence, large, unannounced groups can be catered for, as well as couples on a romantic dinner date. Quite traditionally the light fixtures are mounted to the wainscot. The lamp shades of these fixtures dance across the tables and allow the guests to find privacy in this large room. If the light fixture is not needed, it can easily be pushed aside and the room is again available in its full dimen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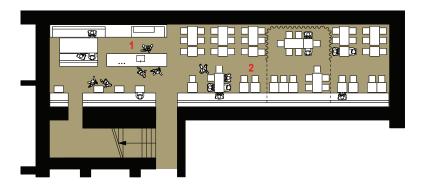


122 CAFE & RESTAURANT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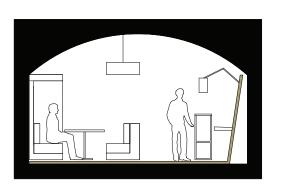


Dividable zone

- 1. Counter 2. Hall



Floor plan



Elevation

GMOA 켈러는 지난 1858년에 창설된 유서 깊은 건물로 오늘날까지 전면적인 변화 없이 약간의 개조 만을 거쳐 그 본연의 매력을 지켜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느낌은 시대에 뒤쳐지는 단점을 초래한다. 이에 디자이너는 레스토랑을 지하층까지 확장하며 이러한 단점을 상쇄하는 디자인을 제안

이곳은 전체적으로 현대풍의 차분한 식사공간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어 고객들은 산뜻한 탁자에서 포도주를 음미하거나 빈(비엔나)의 요리를 재발견할 수 있으며, 단골고객들은 고전적인 느낌의 탁자 에서 맥주를 즐길 수 있다. 이에 여러가지 장식들로 공간을 꾸미는 낭만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벽돌 로 아치를 만들고 백색으로 마감해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공간을 만들었다. 여기에 목재바닥과 징두리 목재판은 짙은 색으로 착색하여 사용함으로 하얀 벽돌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하였으며 공간 한쪽 에는 극장막의 레일을 설치하고 커튼을 달아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60x60cm 크기의 탁자들을 놓아 고객들의 규모에 따라 자유롭게 재배치할 수 있게 해 공간의 효율성 을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징두리 벽판에는 전통적인 느낌의 조명기기들을 설치해 칸막이 없이도 아 늑하고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 조명기기들을 한쪽으로 밀어두면 공간을 전체적으로 사용 할 수 있어 보다 유동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이곳은 건물의 전통을 바탕으로 너무 딱딱하거나 무겁지 않으며 또 너무 캐주얼하지 않게 조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전통과 현대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는 이곳에서 부담스럽거나 가볍지 않게 다 루어지며 공간의 이미지를 더욱 향상시킨다.

124 CAFE & RESTAURANT 125